

2023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

開 會 辭

2023. 8. 31. (목) 09:00~09:03 (3분)

이화여대 이삼봉홀

금 용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2023년 「Change the world with Green Finance」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Colin Crooks^{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님,

Peter van der Vliet^{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대사님,

Sabrina Meersohn Meinecke^{사브리나 미어슨 마이네케} 주한 덴마크부대사님,

윤종규 KB 금융그룹 회장님, 진옥동 신한 금융그룹 회장님,
함영주 하나 금융그룹 회장님, 임종룡 우리 금융그룹 회장님,
이석준 NH 금융그룹 회장님,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님

또한, 친히 영상으로 축하를 보내주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님,

Maria Castillo Fernandez^{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대사님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김은미 총장님과 이화여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기후위기와 녹색금융의 역할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 ‘기후위기’ 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기술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금융권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즉, 녹색금융을 공급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금융은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의
투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III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금융감독원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권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현장에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적용시스템을 금융권 공동으로 개발중이며, 그간 경과를 컨퍼런스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은 금융권 내에서 다소 생소한 녹색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대 금융지주사와 함께 금융권 ESG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자들이 녹색금융과 관련된 투자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업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내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녹색금융은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저는 UN기후변화협약 Simon Stiell^{사이먼 스틸} 사무국장의
G20 기후환경 장관회의 기조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충분한
자금공급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금공급은 필수적인 의무이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제 컨퍼런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